

한마디로 해서 還元焰에 의한 燃燒는 充分하다. 바닥에는 中心에 文樣化한 菊輪, 그 四方에는 半開蓮花折枝가 陰刻되어 있다.

밑바닥은 施釉後에 中心部와 그 둘레를 環狀으로 굽어냈으며 이 淡朱色 露胎部分에는 窯內에서 고였던 十三個의 모래받침이 있다. 이 環狀과 等間隔의 모래받침은 整然, 周到하여 偶然이지만 裝飾的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三

이 精美한 靑磁는 錢에서 두께가 〇.7cm나 되며 部分에 따라서는 形態가 肉感的인데 운두의 淺碧色 釉調는 故全齋弼氏所藏의 靑磁鴨形硯滴이나 雲鶴梅瓶等과 거의 다름이 없다. 따지고 보면 이들과 같은 釉調는 드문 것이니만큼 年代推定에 最大限 橫的 聯關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後二者도 裝飾 또는 技法上 서로 틀리는 時期로 보기는 하지만 이 果盤은 鴨形硯滴의 時期에 比定해도 좋을 듯하다. 鴨形硯滴은 十二世紀 前半으로 推定되고 있는 듯한데 아무리 멀어진대로 雲鶴梅瓶의 十二世紀 後半——十三世紀初葉以後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筆者의 記憶으로는 國博所藏 靑磁破片中 康津 龍雲里나 沙堂里 窯址蒐 集品 가운데 이와 같은 釉調의 殘片들이 많았던 듯하다. (全忠信氏 藏)

求禮 論谷里的 石造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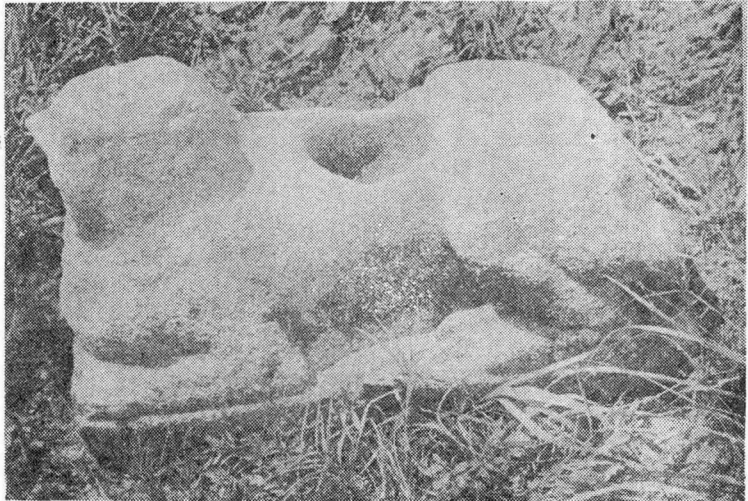
秦 弘 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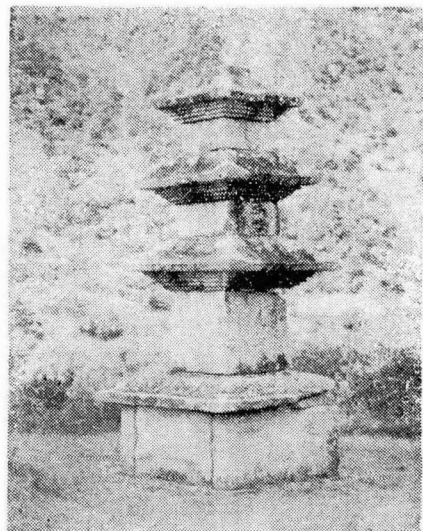
求禮郡 求禮面 論谷里에 石造遺物 數點이 傳하고 있다. 그 中 石塔은 잘 保存되어 있으나 其他 遺物은 풀에 묻혀 있었고 洞里人들 中에는 그 存在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대야 큰 關心이 없었다. 이 地帶는 昔은 골자기에 溪水를 境界삼아 求禮郡과 谷城郡이 갈려 있다. 塔이 있는 地點에서 山을 조금 내려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谷城 땅으로 들어서면 寺址가 있고 그 附近에서 銅佛一軀가 發見되었다. 이와같이 이 地帶에는 數個의 寺址가 있었으며 이러한 寺院은 新羅時代부터 高麗時代에 걸쳐 있었

던 것이 짐작된다.

一、三層石塔

一重基壇의 一般 形石塔으로 下層基壇은 四枚로 構成하고 撐柱로서 二區로 區分되었다. 上層基壇도 四枚로 構成하였으나 撐柱만이 없다. 上層甲石은 一枚이며 上面에는 十二瓣의 蓮花를 彫刻하여 初層屋身을 받고 있다. 蓮花는 瓣端이 위로 들렸고 中間에 양쪽에서 안으로 내밀린 花瓣이 있으며 中央間地에 또 花形을 두고 있다. 塔身은 三層이 次例로 遞減되었고 屋蓋石 받침은 各各四段이며 比較的 두꺼워서 落水面의 傾斜는 완만하다. 이러한 點은 一見해서 高麗時代 作品임을 알 수 있다. 三層屋蓋石은 露盤과 한둘로 되었으며 相輪部도 八·一五前까지는 있었으나 그 後 里人들이 賣却한 바 되어 現在는 볼 수 없다. 一部破損된 部分이 있기는 하나 大部分 健在하다. 現在高三·五m





一、石獅子 二軀

물속에 묻혀 있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二軀의 石獅子는 一軀는 입과 前脚이 破損되었고 다른 一軀는 입이 破損되었다. 밑에 長方形 臺石이 있고 그 위에 남작이 얹드려 있는 獅子로서 등에는 徑六·八寸 深五寸의 圓孔이 뚫려 있다. 이것이 무엇에 使用되었던 것인지 갑자기 정하기 어려우나 臺石으로 使用되었던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全體에 磨滅이 있기는 하나 彫刻은 제법 볼만하며 그 製作은 高麗時代로 보여진다. 二軀의 크기가 同一

三、石佛像 一軀

頭部가 缺失된 坐像으로 全面에 磨損이甚해서 衣紋도 똑똑하지 않아서 石佛이 如來像인지 菩薩像인지도 分揀하기 어렵다. 姿勢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 팔을 무릎위에 걸치고 있는 모습이 月精寺나 神福寺址에 있는

石造菩薩像과 恰似

한 點으로 보아 菩薩像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附近의 石塔이나 石獅子가 모두 高麗時代의 製作으로 보여지며 이 石佛亦是 彫刻手法으로 보아 같은 時代의 作品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姿勢가 江原道에 所在하는 前記 二軀의 佛像外에 南道에서도 例를 볼수 있는 點은 매우 興味를 끄는 일일뿐 아니라 이러한 姿勢가 宋代에 流行하던 安樂座의 形態와 類似的한 點으로도 한 때 高麗時代에서 流行하던 形態로 생각된다. 現高二·三尺 膝幅一·六三尺 膝高一·二五尺



前述한 바와 같이 여기서 山을 내려와 계곡을 건너면 谷城郡 古達面 杜柯里塔仙部落이 되는데 그 뒷山에 부처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고 그 앞에 寺址가 있다. 지금 寺址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으나 다만 여기서 出土되었다는 高二·五寸의 小銅佛을 同部落的의 金伯鉉氏가 保管하고 있다. 全面에 磨滅이甚해서 細部를 알 수 없으나 通印에 通肩한 立像이다. 背後에는 光背 柄이 있고 全體의 모델링이나 衣紋等이 新羅統一時代 銅佛의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點으로 보아 新羅時代